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1

김승옥 단편소설에 나타난 자기 세계의 형성과 소멸 과정 연구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을 대상으로-

곽 상 순*

요 약

〈서울 1964년 겨울〉의 중심인물인 '안'은 꿈틀거리는 것들을 조금 멀리에서 바라보는 행위 속에서 자신만의 꿈틀거림을 느낀다. 타인의 욕구와 욕망이 분출하는 시간과 공간을 포착하여 그것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며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작업에는 그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희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열의 세계에서 실재적 죽음은 그 자리를 잃는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분되는 보편적인 현상인 죽음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따라서 자신만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에게는 특별한 바라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안'은 곧 죽으리라는 것이 분명한 '아저씨'의 상태를 방관하지만, '아저씨'의 예기된 죽음은 그에게 예기치 못한 충격을 남긴다. '아저씨'의 죽음을 실제로 겪으면서 그는 생생하게 꿈틀거리며 살아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죽음의 일부로서의 삶'의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처럼 〈서울 1964년 겨울〉의 '안'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이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세계의 소멸을 겪는다면,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언제나 이미 죽어있다고 생각한 자기 자신이 사실은 현실에 아주 잘 적응하며 살아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자기

* 인천대학교 기초교육원

세계를 상실하게 된다. 윤희중에게 무진에서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방식으로의 허깨비의 삶이며, 서울에서의 삶은 자멸적 속화로서의 허깨비의 삶이다. 무진에서도 서울에서도 얼마쯤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던 그는 그러나 하인숙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얼마간 죽어있다고 믿으며 사실은 현실에 성공적으로 적응해온 것임을 깨닫게 된다. 그는 속화의 한 방식으로 자멸의 포즈를 선택한 것임에도 마치 자멸의 한 방식으로 속화된 삶을 택한 것인 양 그렇게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속여 왔던 것이다.

〈서울 1964년 겨울〉에서 '안'은 상징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자기 세계를 구축한다. 반대로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일종의 자멸의 한 방식으로 상징적 죽음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르기 위해 자기 세계를 고집한다. '안'에게 자기 세계는 상징적 죽음에서 벗어난 살아있는 꿈틀거림의 상태이다. 〈무진기행〉의 윤희중에게 자기 세계는 절대적 수동성이나 열렬한 능동성의 외양을 지닌 상징적 죽음에 고착된 상태이다. 이러한 자신의 상태가 사실은 허위이거나 자기기만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이들의 자기 세계는 소멸하게 된다. 자신이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곧 죽음에 이르는 지름길이었거나, 혹은 자신이 상징적인 죽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곧 성공적인 삶의 방식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지금까지 그럭저럭 자신들을 지탱해왔던 자기 세계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자기 세계,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무진기행, 삶, 죽음, 속화, 자멸

목차

1. 서론
2. 삶의 일부로서의 죽음에서 죽음의 일부로서의 삶으로
   - 〈서울 1964년 겨울〉
3. 자멸로서의 속화에서 속화로서의 자멸로 - 〈무진기행〉
4. 결론

1. 서론

김승옥의 소설들은 대체로 자기 세계의 문제와 함께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김승옥 소설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주제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자기 세계는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 언급되어 왔는데,[1] 이러한 경향은 물론 작가 자신의 관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작가 자신이 인물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세계를 통해 개인의 발견에 대한 고유한 인식을 보여주려 애썼기 때문에,[2] 그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중심에 자기 세계라는 개념이 놓이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자기 세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것의 형성 과정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과만큼이나 한계도 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자아, 주체성, 세계관, 신념, 콤플렉스 등등으로 번역될 여지를 고루 갖고 있는 그의 자기 세계라는 개념은[3] 그 무수한 면을 가진 다면체적인 모습으로 인해 통일된 면모를 파악하려는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왔다. 김승옥의 자기 세계라는 개념에는 "함락시킬 수 없는 성곽", "거미줄이 자라나는 지하실", "밤과 낮이 있는 성곽" 등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개념이 뒤섞인 채로 담겨 있어 통일된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우며,[4] 따라서 각각의 연구자들에 따라 다른 의미 내용과 가치를 갖는다는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5]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세계의 형성 과정뿐만 아

1) 신아현, 「극기에의 실패-김승옥 초기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016, 3, 6면.
2) 윤애경, 「김승옥 소설에서의 '자기세계' 양상」, 『한국학연구』, 2000. 7, 173면.
3) 신형철, 「청년문학의 생명연습」, 『생명연습』 해설, 문학동네, 2014, 471면.
4)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19면.
5) 이수형, 「주체의 책임과 자유」, 『상허학보』, 2006. 2, 412면.

니라 그것의 소멸 과정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김승옥의 소설 세계는 흔히 자기 세계의 진정한 확립까지의 기나긴 형성과 변형의 과정이라고 정의되며, 김승옥을 이처럼 자기 세계 형성을 위해 노력한 작가로 인식하는 것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한 자기 세계의 소멸의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작가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승옥의 데뷔작 〈생명연습〉은 자기 세계가 형성되는 과정의 지난함과 기막힘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것의 형성 과정 속에는 김승옥의 표현을 빌리면 "번득이는 철편이 있고 눈뜰 수 없는 현기증이 있고 끈덕진 살의가 있고 그리고 마음을 쥐어짜는 회오와 사랑"이 있다. 이러한 살의와 회오와 사랑의 연속적 과정을 김승옥은 '생명연습'의 과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곧 주체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 위한 자신만의 삶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자 자기 세계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기 세계는 그것을 유지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노력이 투여된다. 자기 세계를 구축하는 일도 어렵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일도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6] 자기 세계를 유지하는 지난한 작업에 실패한 김승옥 소설의 주체들은 자멸의 길을 택함으로써 실재적 죽음을 맞이하거나 속화의 길을 걸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죽어가는 쪽을 택한다.[7] 김승옥의 초기작인 〈생명연습〉과 〈환상수첩〉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자기 세계는 이러한 자멸의 길과 속화의 길을 따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구축되고 유지되고 소멸된다. 김승옥의 주체들은 때로는 자멸로써 자기 세계를 완성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 세계의 유지에 실패했기 때문에 자멸하기도 한다. 그들은 때로는 자기 세계를 상실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속화의 길을 걷기도

6) 신형철, 앞의 글, 471면.
7) 신형철, 앞의 글, 473면.

하고, 또 때로는 그러한 속화의 과정의 끝에서 자기 세계의 소멸을 만나기도 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본고에서는 김승옥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을 대상으로 그 소설 속에서 자기 세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소멸의 과정이 어떤 의미화 과정을 거쳐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을 대상으로 김승옥 소설의 독자적 특질이라 할 수 있는 자기 세계의 형성과 소멸의 과정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이 두 작품에 대한 다시 읽기를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의 〈생명연습〉과 〈환상수첩〉 등에 나타난 김승옥 소설의 원형적 특질들이 어떻게 이후의 소설들 속에서 연속되고 변이되는지를 고찰하고, 이를 통해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 뿐만 아니라 김승옥의 소설 세계 전반을 일관되게 해명할 수 있는 해석학적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적 목적이다.

2. 삶의 일부로서의 죽음에서 죽음의 일부로서의 삶으로 - 〈서울 1964년 겨울〉

〈서울 1964년 겨울〉은 모든 사건과 상황이 '나'의 의식을 중심으로 서술되는 주관적 시점을 취하고 있다. 소설 전반에 걸쳐 '나'의 사고와 관점이 중점적으로 투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에 따른 내면의 불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물은 '안'이라는 대학원생이다. 때문에 소설의 중심 인물 또한 '내'가 아니라 '안'이라고 볼 수 있다. 소설의 전반부에서 확고한 '자기 세계'를 보여주던 '안'은 점차 그러한 '자기 세계'가 흔들리는 과정을 겪게 되며, 급기야는 자신이 너무 늙어버린 것은 아

닌가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따라서 '안'의 확고한 '자기 세계'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추이를 추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가 궁극적으로 깨닫게 되는 두려움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서울 1964년 겨울〉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1964년 겨울〉은 시골 출신으로 지금은 구청 병사계에서 일하고 있는 '나'와 대학원생이자 부잣집 장남인 '안'의 만남이 중심 사건을 이루는 전반부와, 이들 사이에 '낯선 사내'가 개입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나'와 '안'은 밤이 되면 서울 거리에 하나 둘 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선술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둘의 대화는 파리를 사랑하는지를 묻는 다소 엉뚱한 '나'의 질문으로 시작된다. 날 수 있는 것 중 손으로 직접 잡을 수 있는 것은 파리밖에 없으므로 자신은 파리를 사랑한다는 '나'의 대답에 '안'은 흥미를 느낀다. 그것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주제인 '꿈틀거림'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다행히 '나'는 '꿈틀거림'이라는 주제에 호의적으로 반응하지만, 그러나 '오르내리는' 여성의 아랫배를 지독히도 사랑한다는 '나'의 인식과 데모야말로 끓어오르는 욕망의 일종이자 가장 대표적인 '꿈틀거림'이라고 생각하는 '안'의 인식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꿈틀거림'에 관한 이야기는 오 분도 안 돼서 끝나버린다.

단속적으로 이어지던 대화는 우연한 방향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다. 서울에 대해 자신들만이 아는 사실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자 대화는 다시 활기를 띠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평화시장 앞에 줄지어 선 가로등들 중에서 동쪽으로부터 여덟 번째 등은 불이 켜 있지" 않다거나, "단성사 옆 골목의 첫 번째 쓰레기통에는 초콜릿 포장지가 두 장 있다"거나 하는 식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두 사람의 말투는 점점 서로를 존중해가는 투로 변해간다.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그러한 사실들은 온전히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소유이며, 그 소유의 가치를 안다는 것은 존중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문득 '나'는 부잣집 장남이자 대학원생인 '안'과 같은 사람이 추운 밤거리를 쏘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자신처럼 하숙방에 들어앉아서 벽이나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 신세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밤거리에 나오면 뭔가 좀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 "뭐가요?"
> "그 뭔가가. 그러니까 생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난 김형이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밤이 됩니다. 난 집에서 거리로 나옵니다. 난 모든 것에서 해방된 것을 느낍니다. 아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김형은 그렇게 안 느낍니까?"
> "글쎄요."
> "나는 사물의 틈에 끼어서가 아니라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글쎄요. 좀 …."
> "아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를테면 낮엔 그저 스쳐 지나가던 모든 것이 밤이 되면 내 시선 앞에서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놓고 쩔쩔 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일까요? 그런, 사물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는 일이 말입니다."[8]

'안'의 '자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자기 세계'일 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여야 한다는 점이다. 객관적으로는 아무리 하찮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자기만의' 것일 수 있다면 그

8)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생명연습, 』, 문학동네, 2014, 267~268면.

것은 '안'에게는 의미가 있다. '나'와 '안'이 나누는 사실들은 분명 객관적으로는 무가치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수집하고 의미부여하는 시선에 따라 그 하찮은 현상들은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되고 사물의 속살의 현현이 된다. 타인들에게는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에 불과할 지라도 그것에 관심을 갖는 주체적 시선에 따라 그 현상들의 특성은 소급적으로 바뀐다. 바라봄의 행위, 혹은 사실을 헤아리는 행위 그 자체가 일시적인 무가치한 현상들을 '자기 세계'를 구성하는 의미있는 요소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안'에게 가장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는 역설적으로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위라 할 수 있는 그저 바라봄의 행위가 된다. 그저 바라보는 것 속에는 일시적이고 하찮은 현상들을 주체적이고 의미있는 것으로 만드는 마술적인 힘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마술적인 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틈 사이에 끼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사물의 속살들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들 사이에서 함께 살을 맞댐으로서가 아니라 그것들과 조금 멀리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발견하고 비밀히 간직할"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원버스 안에서 아가씨들과 서로 팔목을 대고 서있다거나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 손톱자국을 내는 식의 '나'의 행위들에 '안'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 "난, 종로 2가 쪽입니다. 영보빌딩 안에 있는 변소문의 손잡이 조금 밑에는 약 이 센티미터 가량의 손톱자국이 있습니다."
> 하하하하 하고 그는 소리내어 웃었다.
> "그건 김형이 만들어놓은 자국이겠지요?"
> 나는 무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사실이었다.
> "어떻게 아세요?" 하고 나는 그에게 물었다.
>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별로 기분 좋은 기억이 못 되더군요. 역시 우리는 그냥 바라보

고 발견하고 비밀히 간직해두는 편이 좋겠어요. 그런 짓을 하고 나서는 뒷맛이 좋지 않더군요."[9]

이처럼 '안'은 사물들을 바라봄으로써 꿈틀댄다. 특히 꿈틀거리는 사물들을 바라보는 것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다. '안'이 밤거리를 배회하는 이유는 밤거리를 목격하기 위해서이다. 밤거리는 그 자체로 꿈틀거리는 생물이지만, 그러한 꿈틀거림 속에 한데 섞이는 것보다는 그것을 외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데에서 '안'은 자신만의 꿈틀거림을 느낀다. 그가 가장 대표적인 꿈틀거림으로 꼽는 데모 역시 직접 대열에 참가해서 함께 어깨를 거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꿈틀거리는 것들을 조금 멀리에서 바라보는 행위 그 자체가 '안'에게는 자신만의 꿈틀거림인 것이다. 사물을 멀리 두고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 속에서 그는 생이 풍족해지는 것을 느낀다.

요컨대 숨어 있던 삶의 욕구와 욕망이 분출하는 공간에 대한 애착이 그를 데모대에게로, 혹은 밤거리에로 이끈다. 일상적이고 기능적인 공간이 아닌, 타인의 욕구와 욕망이 분출하는 시간과 공간을 포착하여 그것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에는 그만이 느낄 수 있는 고유한 희열이 있다. 이러한 희열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즉 사물의 속살을 경험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꿈틀거림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살아 있어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는 죽어 있지 않기 위해, 혹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해방감을 보다 생생하게 맛보기 위해 밤거리로 나온다.

이런 '안'에게 '나'는 쉽게 만나기 힘든 흥미로운 존재이다.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상황의 진실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신의 바라봄만은 바라

9)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265~266면.

보지 못하고 있다. '안'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시선 앞에서 사물들은 이미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송두리째 드러내놓고 쩔쩔 매고" 있다. 그러나 사물들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늠할 줄 모르는 '나'는 아직 사물들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나'는 물론 살아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미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안'은 이러한 '나'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생의 풍부함을 알려주고 싶어 한다. 바라봄의 행위에 자신도 모르게 동참하고 있는 '나'는 함께 '자기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후반부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낯선 사내는 여러모로 '안'으로서는 흥미를 갖기 어려운 인물이다. "어디선지는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가난뱅이 냄새가 나는" 사내는 바로 그 날 죽은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고 돈 사천 원을 받았다. 아내와는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지만 처갓집과는 전혀 내왕이 없었던 그는 아내의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병원에 의학실험용으로 팔고 만 것이다.

> "아내의 시체를 병원에 팔았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난 서적 월부판매 외교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돈 사천 원을 주더군요. 난 두 분을 만나기 얼마 전까지도 세브란스 병원 울타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누워 있을 시체실이 있는 건물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타리 곁에 앉아서 병원의 큰 굴뚝에서 나오는 희끄무레한 연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해부실습하느라고 톱으로 머리를 자르고 칼로 배를 찢고 한다는데 정말 그러겠지요?"[10]

10)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273면.

사내는 아내가 죽었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 시체를 단돈 사천 원에 팔아버렸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는 그 사천 원을 오늘 밤 안으로 다 쓰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써야 죽은 아내에게 보상이 될 수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한다. 슬픔과 죄책감으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인 사내는 '나'와 '안'에게 그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함께 있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다.

상실감과 죄책감으로 삶의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사내는 '안'의 관점에서 보면 사물에서 멀리 벗어나 있기는커녕 사물의 틈에 완전히 끼어 있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자신만의 것으로 이루어진 '자기 세계'랄 것도 없다. 그에게 자신만의 것이 있다면 아내의 죽음과 자신의 죽음뿐이다. 아마도 사내에게 그 돈 사천 원은 남아 있는 자신의 삶을 의미할 것이다. 그 돈 사천 원을 한꺼번에 다 써버리고 싶다는 소망은 자신의 남아 있는 삶의 시간을 한꺼번에 다 소진하고 싶다는 소망이나 마찬가지이다. 그 밤의 시간들은 사내의 예정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든 자신의 죽음이든 상실과 죽음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역시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온전히 그 사내의 소유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죽음은 그것을 겪는 개인에게는 절대적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배분되는 보편적인 현상인 것이다.

> "김형, 우린 우리 얘기나 합시다." 하고 안이 말했다. "화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아침 신문에서 볼 것을 오늘 밤에 미리 봤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저 화재는 김형의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이 아저씨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화재는 항상 계속해서 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 화재엔 흥미가 없습니다. 김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대답하며 이젠 ‘학’자에 불이 붙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난 방금 말을 잘못했습니다. 화재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니라 화재는 오로지 화재 자신의 것입니다. 화재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화재에 흥미가 없습니다. 김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감입니다.”[11]

위의 인용문은 ‘화재’에 대한 ‘안’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데, 아마도 ‘화재’라는 말 대신 그 자리에 ‘죽음’이라는 말을 넣는다 해도 ‘안’의 인식은 크게 바뀔 것이 없을 것이다. ‘안’은 사내의 아내의 죽음이든 사내 자신의 죽음이든 죽음 그 자체에 아무런 흥미가 없다. 사내의 아내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된 것과 사내가 곧 죽을 것임을 알게 된 것은 ‘안’에게는 사실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내일 아침 신문에서 볼 것을 오늘 밤에 미리 알게 됐다는 차이밖에 없다. 죽음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죽음들은 ‘나’의 것도 아니고 ‘안’ 자신의 것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죽음 자신의 것이다. 화재가 화재 자신의 것이듯 ‘안’에게 죽음은 오직 죽음 자신의 소유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내의 안타까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안’은 시종일관 그를 냉담하게 대한다. 술과 비싼 음식을 대접받고, 넥타이를 선물받고, 소방차를 쫓아가 화재를 구경하는 내내 ‘안’은 그에게서 거리를 두거나 아예 그의 곁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만을 엿본다. 마침내 불타고 있는 아내의 환영을 본 사내가 불 속으로 남은 돈을 모두 던져버리자, ‘안’은 기다렸다는 듯 사내에게 작별을 고한다. 약속대로 가진 돈을 모두 다 썼으므로 이제는 각자가 자신의 길을 가도 좋다

11)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277면.

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삶의 의욕을 모두 상실한 상태인 사내는 계속해서 두 사람에게 의지한다. 밀린 월부 책값을 받아오겠다는 절망적인 사내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 통금시간에 쫓기게 된 그들은 결국 함께 가까운 여관에 들기로 한다. 각자 따로 방을 잡고 밤을 보낸 다음 날 '안'은 사내가 죽어버린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귀찮은 일에 말려들지 않도록 '안'은 '나'를 깨워 조용히 그 여관을 빠져나간다.

> "난 그 사람이 죽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안이 말했다.
> "난 짐작도 못했습니다."라고 나는 사실대로 얘기했다.
> "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코트의 깃을 세우며 말했다.
>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 "그렇지요. 할 수 없지요. 난 짐작도 못 했는데 …." 내가 말했다.
> "짐작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가 내게 물었다.
> "씨팔것, 어떻게 합니까? 그 양반 우리더러 어떡하라는 건지 …."
>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놓아두면 죽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생각해본 최선의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 "난 그 양반이 죽으리라고는 짐작도 못 했다니까요. 씨팔것, 약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군요."
> 안은 눈을 맞고 있는 어느 앙상한 가로수 밑에서 멈췄다. 나도 그를 따라서 멈췄다. 그가 이상하다는 얼굴로 나에게 물었다.
> "김형, 우리는 분명히 스물다섯 살짜리죠?"
> "난 분명히 그렇습니다."
> "나두 그건 분명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 번 갸웃했다.
> "두려워집니다."

"뭐가요?" 내가 물었다.
"그 뭔가가, 그러니까 …" 그가 한숨 같은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너무 늙어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린 이제 겨우 스물다섯 살입니다." 나는 말했다.[12)]

사내의 죽음과 관련하여 '나'는 여전히 모든 것을 보기는 하지만 자신이 보는 것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순진무구한 제3자로 남아 있다. 반면 '안'은 사내의 행위의 실제 의미를 전적으로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수동적인 구경꾼의 역할을 하는 무력한 관찰자이다. '나'에게 사내의 죽음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었지만, '안'은 사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내의 죽음은 그 사내의 것이고 사내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 역시 사내 그 자신이어야 하기에, '안'은 그의 선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태도로 행동했다. 그는 선택을 온전히 그 사내에게 맡겼지만, 예기된 사내의 죽음은 그에게 예기치 않은 충격을 남긴다. 사내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안'은 '나'에게 계속해서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의를 구한다. 그리고 불현듯 둘의 대화가 아내의 시체를 팔고 돈 사천 원을 얻은 것에 대해 할 수 없었다고 반복해서 읊조리던 사내의 변명과 닮아 있음을 깨닫는다.

사내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내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아내의 시체가 "톱으로 머리를 잘리고 칼로 배를 찢기게 되는데" 대해서도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 그를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안'과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얼마쯤은 죽어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안'은 그러한 사내의 '아무 것도 할 수 없음', 혹은 '어쩔 수 없음'의 입장에

12)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285~286면.

자신이 서 있음을 알게 된다. 그는 사내가 죽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사내의 시체가 무연고자의 상태로 쓸쓸히 버려질 것을 알고 있지만 역시 어쩔 수 없이 그로부터 달아나고 있다.

사내는 죽은 자의 매장 앞에서 무력했기에 그 역시 죽은 자가 되었다. '안' 또한 자신이 처음 만났던 사내의 바로 그 입장과 상태에 가까이 가 있음을 '나'와의 대화를 통해 깨닫는다. 자신 역시 죽어있는 산 자의 예정된 죽음을 막는데,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제대로 매장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죽은 사내와 마찬가지로 '안' 또한 그저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을 되풀이 할 뿐이다. 이처럼 사내가 차지하고 있던 위치에 지금 자신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스스로 유죄가 된다. '안'은 타인의 자리에서 타인의 죄가 자신에게 돌아옴을 느낀다. 그리고 그에 따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확고한 '자기 세계'에 따른 합리적 행동으로 이해되었던 것이,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현실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행위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혐오감을 자아내는 악덕이 된다. 간밤에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행동과 선택과 태도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전혀 다른 상징적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갑작스런 역전이 '안'에게 두려움과 상실감을 불러일으킨다. '자기 세계'의 전적인 상실과 소멸로 인해 그는 스물다섯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너무 늙어버린 상태가 된다. 헤어지기 직전의 '나'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어떤 입장을 점유하고 있는지를 깨달음으로써 그가 애써 가꾸어 온 '자기 세계'가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채로 소멸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안'은 알게 된다. '자기 세계'가 주는 생의 풍부함을 더 이상은 느낄 수 없으며, '꿈틀거림'으로 상징되는 고유한 희열의 세계로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어렴풋이나마 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은 '자기 세계'에 투철했기 때문에 그것의 궁극적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안'에게 '나'는 물론 살아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죽어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그때의 '나'의 죽음이란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 즉 '꿈틀거림'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의 죽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채로의 죽음이자 삶의 일부로서의 죽음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안'과 만났을 때 이미 사내는 어느 정도 죽어있는 채였지만, 그러나 여기에서의 사내의 죽음은 '나'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죽음이다. 그것은 '자기 세계'를 확립할 가능성 자체의 죽음이자 '자기 세계' 자체를 다시는 획득할 수 없다는 근본적 의미에서의 죽음인 것이다.

'안'과 '나'의 만남이 있던 때까지 '안'에게 세계는 여전히 살아있는 세계이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의 일부인 세계였다. 반면 낯선 사내를 만나고 그의 실제 죽음을 겪은 이후로는 그 사내가 아내의 죽음과 시체 판매 이후 그러했던 것처럼 죽음 자체가 지배적인 세계이자 삶이 죽음의 일부인 세계에 속하게 된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삶의 일부로서의 죽음조차 용납하지 않기 위해 그는 '자기 세계'에 철저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의 결과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죽음의 일부로서의 삶을 얻게 되었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은 '꿈틀거림'을 느끼지 못할 때의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젊었으나 이미 너무 늙어버린 것 같은 죽어있는 삶인 것이다.

3. 자멸로서의 속화에서 속화로서의 자멸로 - 〈무진기행〉

김승옥의 〈무진기행〉은 미완의 삽화적 구성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독자를 매혹시키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되는 그의 대표작이다.[13] 〈무진기행〉의 놀라운 성공에 힘입어 그 공간적 배경이 된 무진 역시 한국소설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작가 이력에서 이처럼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한 소설은 〈무진기행〉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서울과 고향이 선명하게 대비되는 김승옥의 다른 소설들, 예컨대 〈생명연습〉이나 〈환상수첩〉에서 주인공의 고향은 여수, 혹은 순천과 같은 사실적인 지명으로 제시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순천임에 분명한 무진은 순천이 아니라 허구적인 가상의 공간 무진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주된 배경이 이처럼 가상의 공간으로 제시된 이유를 추적하는 것이 〈무진기행〉의 온전한 이해를 위한 올바른 첫걸음이 될 텐데, 이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무진이 반복적으로 죽음이나 광기와 관련된 장소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희중의 의식 속에서 무진은 무엇보다 죽음의 냄새와 광녀의 냉소로 기억된다. 그는 광주역 앞에서 한 미친 여자와 마주친 후 자신이 지금 무진으로 향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또한 무진의 방죽 아래에서 자살한 작부의 시체를 보고 역시 자신이 지금 무진에 있음을 새삼스럽게 깨닫는다. 무진의 명산물인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가 뿜어내놓은 입김"과도 같이 생각되며, 하인숙이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냄

13) 유종호,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426면.

새를 느낀다.

>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부인> 중의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과는 다른, 좀더 무자비한 청승맞음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떤 개인 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양식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광녀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무엇보다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 있었다.[14]

그러나 오히려 비극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광기어린 사건들은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날 뿐, 정작 무진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생명연습〉의 여수에서는 어머니를 살해하고자 하는 형의 음모와 그런 형의 음모를 저지하려는 누나의 필사적인 노력이 펼쳐진다. 〈건〉의 여수는 밤새 총격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이자 여고생에 대한 윤간이 대수롭지 않게 자행되는 곳이다. 그리고 골방에서 춘화가 제작되는 〈환상수첩〉의 순천은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자멸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절망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이렇듯 실제로 광기어린 사건이나 비극적인 죽음이 발생하는 곳은 여수와 순천이지만, 그러나 이곳들은 특별히 광녀의 냉소나 시체 썩어가는 냄새 등으로 상징화되지는 않는다. 유독 보잘 것 없는 속물들의 속화된 일상이 펼쳐지는 무진만이 그러한 특징들로 각인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희중이 무진을 죽음의 장소로 기억하는 이유는 무진으로 귀향할 때마다 그 자신이 얼마간 훼손되거나 죽어있는 채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혹은 무진으

14) 김승옥, 「무진기행」, 『생명연습』, 문학동네, 2014, 236면.

로 올 때마다 그는 서서히 미쳐가거나 죽어가는 경험을 한다. 본문에 의하면 윤희중의 귀향은 크게 세 번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한국전쟁으로 대학의 강의가 중단되었을 때이다. 서울을 떠나는 마지막 기차를 놓친 그는 서울에서 무진까지의 천여 리 길을 발가락이 불어 터지도록 걸어 내려와 어머니에 의해 골방에 처박혀지는 신세가 된다. 두 번째 귀향은 폐병을 치료하기 위해 일 년 간 내려와 있던 때인데, 바닷가의 한적한 집에서 더러워진 폐를 씻어내며 윤희중은 '쓸쓸하다'라는 단어로 점철된 답장 없는 편지를 도시로 띄워 보내는 단절의 시간을 경험한다.[15] 그리고 세 번째의 귀향은 4년 전에 일자리를 잃고 동거하던 '희'까지 잃어버린 후 실의에 빠진 채 무진으로 내려오게 된 일이다.

어머니에게 몰려서 의용군의 징발도 그 후의 국군의 징병도 모두 기피해버린 그는 골방 속에서 스스로를 모멸하고 오욕을 견디며 서서히 미쳐가거나 죽어간다. 혹은 폐병이라는 치명적인 육체적 훼손과 절망적이리만큼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그는 무한한 쓸쓸함에 젖어 서서히 미쳐가거나 죽어간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배반당한 상처와 상실감으로 역시 그는 서서히 미쳐가거나 죽어간다. 때문에 윤희중은 자연스럽게 무진에서는 자신이 얼마간 미쳐있거나 죽어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반복적으로 무진의 이미지로 제시되는 광녀의 냉소나 시체의 썩어가는 냄새는 실은 무진의 것이 아니라 무진에 머물고 있는 윤희중 자신의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광녀처럼 미쳐있거나 시체처럼 썩어있는 것은 무진이 아니라 무진에 속해 있는 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네 번째로 무진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누구나 조용히 잠들 수 있게 만드는 수면제를 상상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생각을 한동안 잊고 있다가 술집 작부가 청산가리를 먹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15) 최갑진,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동남어문논집』, 1995, 74~75면.

때 자신이 생각하던 수면제가 이미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의심한다.

> "무슨 약을 먹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어쩌면…." 순경에게 내가 말했다. "저런 여자들이 먹는 건 청산가립니다. 수면제 몇 알 먹고 떠들썩한 연극 같은 건 안 하지요. 그것만은 고마운 일이지만." 나는 무진으로 오는 버스칸에서 수면제를 만들어 팔겠다는 공상을 한 것이 생각났다. 햇빛의 신선한 밝음과 살갗에 탄력을 주는 정도의 공기의 저온, 그리고 해풍에 섞여 있는 정도의 소금기, 이 세 가지를 합성하여 수면제를 만들 수 있다면…. 그러나 사실 그 수면제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게 아닐까.[16]

이 점을 고려하면 그가 말하는 조용히 잠든다는 것과 그가 만들고 싶어 하는 수면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분명해진다. 요컨대 그는 정말로 자살을 꿈꾸는 것이다.[17] 김승옥 소설의 청년성과 낭만성을 상징하기도 하는 등장인물들의 과도한 자멸의 경향은 대체로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라는 가차 없는 양자택일의 구조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은데,[18]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실제로 죽을 용기를 지니지 못한 윤희중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자기 나름의 자멸을 택한다.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의 가차 없는 양자택일의 구조가 등장하는 것은 〈무진기행〉에서도 예외가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자멸의 길과 속화의 길 중에서 윤희중은 나름의 방식으로 자멸 없는 자멸로서의 죽음이자 타락 없는 타락으로서의 삶을 기획하는 것이다. 실제로 자멸하지도 그렇다고 보잘 것 없는 속물로 완전히 타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는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방식

16) 김승옥, 「무진기행」, 245~246면.
17) 김학균, 「무진기행의 멜랑콜리 고찰」,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 3, 71면.
18) 신형철, 앞의 글, 469면.

으로, 혹은 자멸로서의 속화의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허비하는 길을 택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무진에서의 그의 생활은 광녀의 냉소와 시체 썩어가는 냄새로 상징되는데, 왜냐하면 무진에서 그는 이미 얼마간 미쳐있거나 죽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의 무진에서의 생활은 언제나 절대적 수동성의 상태에 가깝다. 무진으로 내려올 때마다 그는 죽음의 상태에 가까운 근본적인 무기력 속에서 시체처럼 썩어가는 삶을 선택한다. 실제로 자살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골방 안에 갇힌 시체이거나 허깨비처럼 거리를 헤매는 유령이 됨으로써 '자멸 없는 자멸'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무진은 실제의 공간인 순천이 아니라 가상의 공간인 무진일 수밖에 없다. 그곳은 '살아있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윤희중에게는 일종의 현세에 존재하는 내세처럼 기능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번 얼마간 죽어있기 위해, 혹은 자신이 이미 죽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무진으로 향한다.

반대로 서울에서의 그의 삶은 열렬하고도 적극적인 생에의 투신으로 특징화된다. 무진에서의 근본적 무기력과는 정반대로 서울에서 그는 바쁘다고 자랑스러워 할 틈도 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서울 생활은 무진에서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자멸에 가깝다.

> 방바닥에는 비단 방석이 놓여 있고 그 위에는 화투짝이 흩어져 있었다. 무진이다. 곧 입술을 태울 듯이 타들어가는 담배꽁초를 입에 물고 눈으로 들어오는 그 담배연기 때문에 눈물을 찔끔거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이미 정오가 가까운 시각에야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날의 허황한 운수를 점쳐보던 그 화투짝이었다. 또는, 자신을 팽개치듯이 끼어들던 언젠가의 노름판, 그 노름판에서 나의 뜨거워져가는 머리와 손가락만을 제외하곤 내 몸을 전연 느끼지 못하게 만들던 그 화투짝이었다.[19]

서울에서 윤희중은 한 때 “자신을 팽개치듯이” 노름판에 열중했던 것처럼 속화된 삶에 열중하며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하려 애쓰고 있다. 경쟁이 치열한 환경 속에서 이익을 남겨야 하는 경영 활동이 주를 이루는 서울 생활은 그에게는 이미 무진에서의 노름판이나 다름이 없다. 아마도 희를 상실한 이유를 자신의 경제적 무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윤희중은 돈 많은 아내의 도움을 얻어 출세함으로써 그녀에게 복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이러한 투신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 아니며, 또한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전적으로 무용한 것임을 이미 잘 알고 있다. 그의 속화와 타락은 명백히 얼마간의 자의식적인 자기반성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예컨대 아내의 권유로 무진에 내려온 다음 날 어머니 산소의 풀을 뜯으면서 그는 그 시각에도 자신을 전무님으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을 장인 영감을 떠올리며 차라리 묘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싶다고 생각한다. 또한 고등고시에 패스해서 무진의 세무서장으로 있는 동창 ‘조’의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몸짓을 보면서는 그러한 출세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를 마음 속 깊이 동정한다.

이렇듯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는 아무 것도 모른다는 듯이 속화된 삶에의 투신을 계속한다.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는 바쁜 것을 자랑스러워할 틈도 없이 바쁜 삶에 계속해서 “자신을 팽개치듯이” 끼어드는 것이다. 이러한 윤희중의 태도에는 김승옥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특유의 자학이나 위악의 냄새가 배어 있다. 그리고 이처럼 명백한 자학적이고 위악적인 경향이 그의 속화를 단순히 자멸의 대립항으로 이해할 수 없도록 만든다.[20] 서울에서의 그의 속

19) 김승옥, 『무진기행』, 233~234면.
20) 신형철에 따르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 것인가’라는 물음을 김승옥은 ‘순수 아

화된 삶은 자멸의 반대가 아니라 차라리 그가 선택한 또 다른 방식의 자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무진에서의 그의 삶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방식으로서의 허깨비의 삶이라면, 서울에서의 그의 삶은 자신을 내팽개치는 자멸의 한 방식으로 속화의 길을 선택하는 자멸적 속화로서의 허깨비의 삶이라는 것이다. 바꿔 말해서 무진에서의 그가 절대적 수동성의 상태 속에서 이미 죽어있는 것이라면, 반대로 서울에서의 그는 열렬한 능동성에의 투신 속에서 역시 죽어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희중이 때마다 무진으로 향하는 것은 새로운 용기나 계획을 얻기 위해서가 아님은 분명하다. 서울에는 존재하지 않는 잃어버린 자기 자신 따위는 무진에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서울에서의 윤희중은 공공의 익명성 속에서 허깨비 같은 가면을 쓴 채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무진에서의 그는 내면 깊은 곳에 간직한 자멸적 충동을 꺼내어 조금씩 삼키면서 자기 안으로 깊숙이 침잠하는 쪽을 택한다. 요컨대 무진에서도 여전히 그는 서울에서와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상태이며, 오히려 서울에서보다 더욱 무진에서 그는 죽어있는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죽어있는 삶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때마다 무진을 찾는 이유는 얼마간 자신이 이미 죽어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기억하기 위해서이다. 자칫 자신이 이미 죽어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그의 속화는 자멸의 한 방식이 아니라 완전한 타락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가 타락한 것은 일

니면 타락'이라는 양자택일로 받아들인다. 김승옥의 소설 속에서 순수한 자는 위선이 싫어 위악을 행하다가 환멸을 느끼며 자살하고, 타락한 자는 잠시 동안 고민하는 척하다가 타락한 시대의 타락한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살아남는다. 그러므로 김승옥의 소설에는 두 가지 가능성 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살의 길과 속화의 길. 신형철은 자살의 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환상수첩」, 을, 속화의 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무진기행」을 들고 있다. (신형철, 앞의 글, 473~474면 참조.)

종의 자멸의 한 방식임을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자멸 없는 자멸로서의 죽음과 타락 없는 타락으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는 간헐적으로나마 무진으로 향한다.

그리고 또 하나 윤희중이 무진으로 향하는 보다 더 큰 이유는 한 때 자기가 진짜로 존재했었다는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무진에서 그는 지금은 상실하고 만 진짜 자기 자신이 한 때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그러한 진짜 자신은 서울에서도 무진에서도 이미 사라졌으며, 그의 내면에는 껍데기만 남아 있다. 무진은 자신이 그러한 껍데기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자멸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뿐만 아니라, 그 껍데기 이전에는 진짜 자기 자신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이미 상실한 옛날의 자신을 얼마간 간직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하인숙과의 만남을 통해 윤희중은 지금까지의 자기 세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태도를 받아들일 것을 강요받는다. 윤희중이 밝힌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하인숙은 이미 윤희중 자신이거나, 혹은 적어도 그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자신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하인숙 역시 젊은 날의 윤희중처럼 '어떤 개인 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에서 서서히 미쳐가거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인숙에게 졸업연주회에서 '어떤 개인 날'을 열창한 자신은 진짜 자기 자신이지만, 무진의 세무서장 응접실에서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는 자신은 허깨비나 다름이 없는 자기 자신이다. 하인숙은 윤희중을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자신을 서울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는데, 이것은 물론 진짜 자신을 영영 상실하기 이전에 되찾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윤희중은 그런 하인숙에게서 무진에 내려올 때마다 서서히 미쳐가거나 죽어가던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린다. 윤희중과 하인숙 사이에는 한 때 무진에서 죽어갔던 사람과 지금 무진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만 느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하인숙에게 윤희중은 또 다른 세무서장 '조'일 수 있다. '조'와의 관계 속에서 그와의 결혼이 가져올 득과 실을 속물처럼 저울질하고 있는 하인숙에게 윤희중은 서울에서 출세한, 즉 시골에서 세무서장 일을 하는 '조'보다 조건이 더 나은 또 다른 현실적 대안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윤희중에게 하인숙은 또 하나의 '아내'일 수 있다. 지금의 아내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 부유해짐으로써 희에게서 받은 상처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인숙을 통해 예컨대 '나의 진정한 사랑은 그녀가 아니라 사실은 이 여자'라는 식으로 또 다른 의미의 심리적 위안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택의 상황에서 하인숙은 서울로 데려가 달라는 자신의 부탁을 철회함으로써 윤희중과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결심하는 쪽을 택한다. 그녀에게 더 이상 '어떤 개인 날'을 부른 서울에서의 자기 자신을 되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무진의 윤희중 앞에서의 자신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되찾고자 노력한 진짜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요컨대 자신이 예전에 간직했으나 지금은 상실했다고 생각한 '진정한 자아' 따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것은 사실은 아직 그녀에게 실제로 나타난 적이 없었다. 윤희중과의 만남을 통해 비로소 그녀는 자신이 한 때 간직한 적이 있다고 생각했던 진짜 자기 자신과 실제로 대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하인숙과 달리 윤희중은 그 선택으로부터 달아남으로써 자기 자신을 영영 상실하는 쪽을 택한다. "바다로 뻗은 긴 방죽"을 따라 걸으며 하인숙과 사랑을 약속하고 온 다음 날 아침, 모레 회의 참석을 위해 급히 상경을 바란다는 아내의 전보를 받고 윤희중은 갈등에 빠진다. 그리고 하인숙에게 다음과 같이 반응한다.

> 그러나 나는 돌아서서 전보의 눈을 피하여 편지를 썼다. '갑자기 떠나게 되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써 오늘 제가 먼저 가는 것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만 대화란 항상 의외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쓰겠습니다.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옛날의 저를 오늘의 저로 끌어놓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할 작정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에서 준비가 되는 대로 소식 드리면 당신은 무진을 떠나서 제게 와주십시오. 우리는 아마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쓰고 나서 나는 그 편지를 읽어봤다. 또 한 번 읽어봤다. 그리고 찢어버렸다.[21]

하인숙에게서와 마찬가지로 윤희중에게도 이미 죽어버린 '자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인숙에게 더 이상 '어떤 개인 날'을 부른 자기 자신이 의미가 없게 된 것처럼, 윤희중에게도 하인숙 앞에서의 자신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되찾고자 노력한 진짜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윤희중은 하인숙을 아내와 그녀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아내처럼 취급함으로써 그녀를 영영 상실하는 쪽을 택하며, 그렇게 사라진 하인숙과 함께 그녀 앞에서의 윤희중 자신 역시 영영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윤희중이 정말로 죽어버리게 되는 것은, 자신이 어렴풋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자기 자신을 실제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인숙으로부터 달아나는 바로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이미 오래 전에 상실했다고 믿은 진짜 자기 자신은 사실은 하인숙으로부터 달아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하인숙과의 사랑은 자신이 한 때 간직하고 있다고 믿었던 진정한 자아 자체를 윤희중에게서 빼앗아가는 결과를 낳는다.

---

21) 김승옥, 「무진기행」, 256면.

그것은 이미 상실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선택으로부터 달아남으로써 비로소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실은 그를 그의 자기 세계가 갖는 잔혹한 진실과 대면시킨다. '자멸로서의 속화'라고 하는 그의 자기 세계가 실은 '속화로서의 자멸'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폭로하는 것이다. 자멸의 한 방식으로 속화를 택했다고 믿은 그의 믿음은 단지 위악적 제스추어에 불과한 것이었다. 사실 그는 지금까지 속화의 한 방식으로 자멸의 포즈를 택해왔던 것이다. 윤희중이 무진을 떠나면서 부끄러움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그 때문이다. 그에게 이미 잃어버리거나 얼마간 죽어있는 진짜 자기 자신따위는 없다. 자신은 자신이 생각해온 것처럼 세상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미 죽어있는 척하며 성공적으로 속화되어 온 것임을,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보다 잘 세상에 적응해 온 것임을 그는 하인숙과의 만남을 통해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김승옥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을 대상으로 자기 세계의 형성과 소멸 과정을 검토하였다. 김승옥 소설의 핵심 주제라 할 수 있는 자기 세계는 주로 그 형성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김승옥의 가장 빛나는 성취라 할 수 있는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을 자기 세계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자기 세계가 김승옥 소설의 핵심 주제이며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이 김승옥의 대표작이라고 한다면, 자기 세계라는 주제와 이 대상 작품들을 결부시켜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자기 세계의 형성뿐만 아니라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이 소설들에 접근하였다.

〈서울 1964년 겨울〉의 대학원생 '안'은 꿈틀거리며 살아있기 위해 밤거리로 나온다. 그는 상징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피하기 위해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실재적 죽음을 피하기 위해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유지한다. 실제로는 자살해야 마땅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자살할 용기를 지니지 못한 윤희중은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살아있지도, 그렇다고 실제적으로 죽어있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상징적 죽음의 상태에 유폐되는 쪽을 택한다.

김승옥의 소설에서 자기 세계는 이처럼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김승옥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 위해 자기 세계를 필요로 한다. 〈서울 1964년 겨울〉의 '안'은 그러나 자기 세계를 무조건적으로 고집하는 자신의 행위가 사실은 자기 세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였음을 깨달음으로써, 또한 〈무진기행〉의 윤희중은 상징적 죽음이라는 자신의 상태가 사실은 현실에 잘 적응하기 위한 무의식적 책략이었음을 깨달음으로써 자기 세계의 소멸을 맞게 된다. 죽음이나 자기 소멸의 상태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자기 세계가 사실은 죽음과 자기 소멸을 추동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그들의 자기 세계뿐만 아니라 자아 역시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김승옥의 소설에서 자기 세계는 자아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며, 자기 세계의 형성과 소멸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그 소설 속에 나타나는 삶과 죽음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작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승옥의 소설들은 자기 세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다루는데, 그것은 생명을 연습하다가 자멸하고 속화

하는 과정을 다루는, 즉 삶과 죽음의 상관성과 연속성을 다루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을 자기 세계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소멸의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이 두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으며, 김승옥 소설의 핵심 주제인 자기 세계와 김승옥의 대표작인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을 함께 결부시켜 검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1964년 겨울〉과 〈무진기행〉 역시 자기 세계를 형성함으로써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자기 세계의 소멸을 통해 죽음을 당할 것인지 양자택일의 갈등을 노정하는 〈생명연습〉과 〈환상수첩〉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작품이며, 이러한 문제의식은 김승옥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의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가 추후에도 이어져 김승옥의 여타의 작품들 역시 자기 세계의 형성과 소멸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자료

김승옥, 『생명연습』, 문학동네, 2014.

2. 논문 및 단행본

김학균, 「무진기행의 멜랑콜리 고찰」, 『국제어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4, 3, 63~77면.

신아현, 「극기에의 실패-김승옥 초기소설 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2016, 3, 5~27면.

신형철, 「청년문학의 생명연습」, 『생명연습』 해설, 문학동네, 2014.

유종호, 『비순수의 선언』, 민음사, 1995.

윤애경, 「김승옥 소설에서의 '자기세계' 양상」, 『한국학연구』, 2000. 7, 171~195면.

이수형, 「주체의 책임과 자유」, 『상허학보』 16, 2006. 2, 411~440면.

차미령, 「김승옥 소설의 탈식민주의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2.

최갑진, 「김승옥의 무진기행 연구」, 『동남어문논집』, 1995, 69~80면.

<Abstract>

A Study on Kim seung-ok's Own-World
－focused on the Aspect of it's extinction－

Guahk, Sang-Soon

Kim seung-ok is a writer that represents 1960's and korean modern novel. Also there is a lot of studies about him that focused on the aspect of an Own-world. But, it's extinction didn't got very many spotlights. So we studied on Kim seung-ok's “Seoul the Winter of 1964” and “A trip to Moojin” focused on the aspect of an Own-World, especially it's extinction.

Ahn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Seoul the Winter of 1964” has an Own-World which is made only by his own things, own feeling, and own knowledge. It has not a value that is a common thing, a common sense, and a common place or knowledge for him. So he has no concern about other's death. But death of 'a man' gives a shock to him, so he realizes that he is already in a 'living dead' state.

And Youn Hee-joong who is the main character of “A trip to Moojin” feels that he has been dead in some ways for many years. His hometown Moojin is a place which symbolizes a death for him. A fog always occupies Moojin, and it has an odor like a dead body's smell. But a love affair with Ha in-sook gives him the sudden realization of what he has done, and he don't need his realized. So he wants to escape from her and his realization, but he is not able to escape over

there because of his shameness. It is a Vulgarization which He has regaded a self-destruction.

Like this, this study gives spotlight to “Seoul the Winter of 1964” and “A trip to Moojin”, especially about an Own-World and it's extinction. So, we studies about what about characters shock and realize.

Key words: Own-World, Kim seung-ok, Seoul the Winter of 1964, A trip to Moojin, life, death, vulgarization, self-destruction

투 고 일 : 2017년 4월 18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10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